

두경부의 횡문근육종은 매우 드물며 안와, 비인강, 이부, 부비동, 구강의 연부조직에서 발생하는데 원발부위가 중요한 예후인자로 알려져 있다.

1960년대까지도 외과적절제가 유일한 치료법으로 생존율이 20% 미만이었으나 최근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의 발달로 인하여 5년 생존율이 52~83%로 크게 향상되었다. 연자들은 40세 여자에서 두경부에 발생한 횡문근육종 1예를 경험하였다.

증례: 40세 여자가 좌안유류와 심한안구돌출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부비동전산화 스캔은 상악동, 사골동 및 안와를 침범한 악성종양의 소견을 보였다. 조직생검결과 embryonal type의 횡문근육종으로 확진되었으며 원격전이의 소견은 없어 병기는 제 4기(T4N0M0)로 분류되었다.

4주 간격으로 3회에 걸쳐 VIP 항암화학요법(Cisplatin 20mg/m², Etoposide, 75mg/m², Ifosfamide 1,000 mg/m², 5일간)이 실시되었다. 치료기간중 중증 백혈구감소, 중증 혈소판 감소가 있었으나 조혈모세포 촉진인자와 혈소판수혈에 의해 효과적으로 극복되었다. 세차례 항암치료후 실시한 부비동단층사진상 부분관해로 평가되어 현재 보조 방사선치료중이다. 치료전후의 안과소견은 다음과 같다.

	1993.6.14 (항암요법전)	1993.9.6 (3차 항암요법후)
시력	O.D. 1.0 O.S. 0.3(0.8)	O.D. 1.0 O.S. 1.0
안구내압	정상(O.U.)	정상(O.U.)
Exophthalmometer	OD 15mm OS 21mm	OD 15mm OS 16mm

5

부인두강에 발생한 악성 부신경절종 1례

원자력병원 이비인후과

심윤상 · 김승태* · 오경균 · 이용식

부신경절종은 신경외배엽에서 기원하는 부신경절 조직에서 발생하는 희유한 질환으로서, 미주신

경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전체 부신경절종의 약 3% 정도로 보고되고 있고, 악성 부신경절종은 전체 부신경절종의 10% 미만으로 보고되고 있다. 저자들은 두개저에서 경부에 이르는 미주신경내 악성 부신경절종 1례를 치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6

부인두강 혈관섬유종 1례

원자력병원 이비인후과

심윤상 · 장경만* · 오경균 · 이용식

혈관섬유종은 혈관에서 기원하는 조직학적으로 양성종양으로서, 전체 두경부 종양의 0.05% 이하의 발생빈도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층, 남자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발생부위로는 95% 이상이 비인강내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저자들은 최근 희귀하게 부인두강에 발생한 거대한 혈관섬유종 1례를 치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환자는 남자, 28세로 내원시 우측 경부 상부의 10cm 정도되는 종물로 구강내로 돌출되어있었으며, 혈관조영술상 혈관과다성 종양의 소견을 보였다. 치료는 경부적 접근법으로 완전절제 하였으며, 종물은 두개저까지 커져있는 혈관과다성이었지만 잘피포되었는 연부조직 종양의 소견을 보였다. 병리학적 조직검사의 소견은 혈관섬유종으로 진단이 되었으며, 환자는 수술후 합병증 없이 퇴원하였다.

7

원발성 부갑상선 기능항진증에 대한 임상적 고찰

고려의대 이비인후-두경부외과학교실

정광윤* · 이종수 · 최종욱

고려의대 내과학교실

백 세 현